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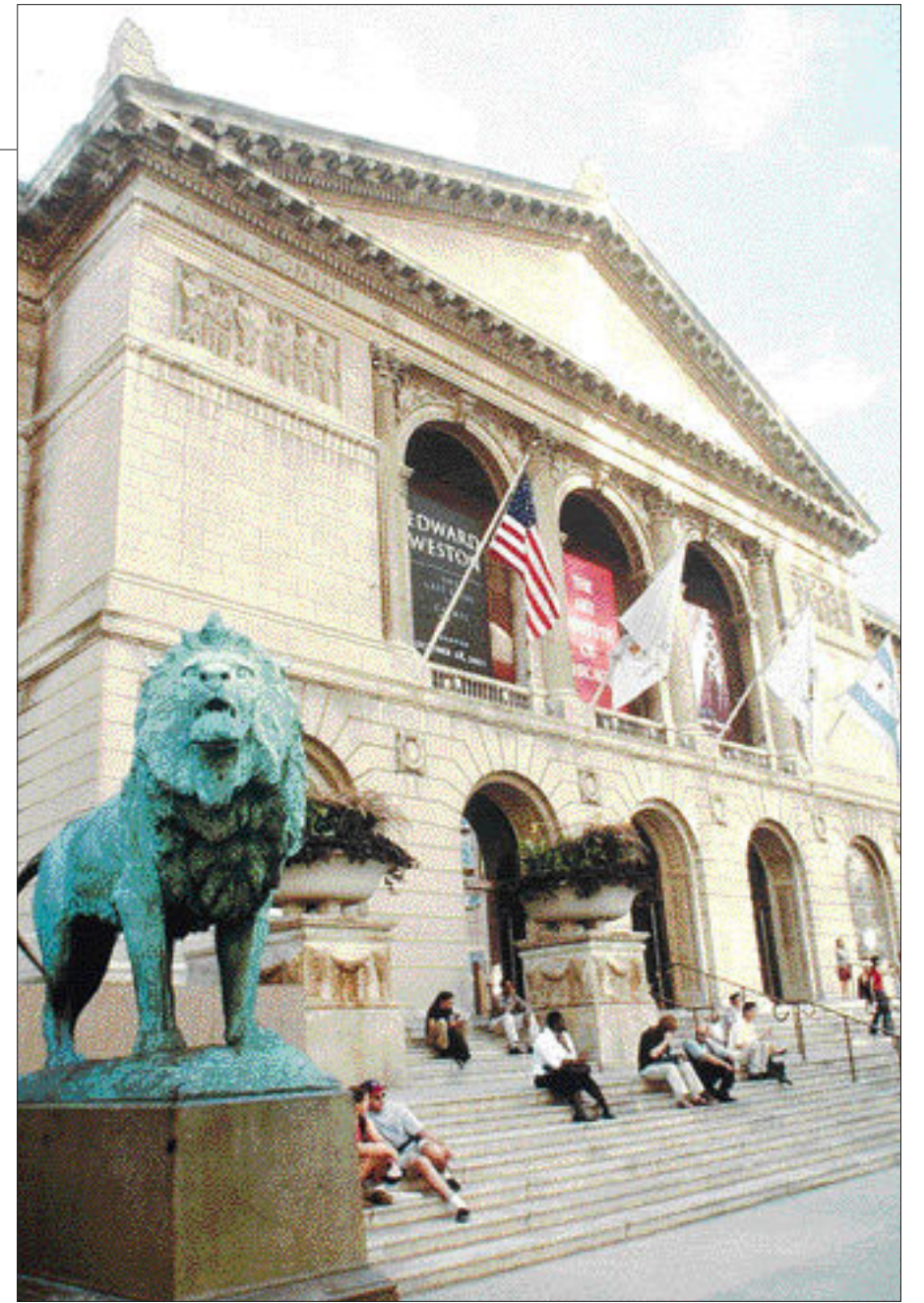
회의장 임대...연중 내내 '컨벤션 수익'

미국 중서부의 제1도시 시카고는 하늘을 찌를 듯한 최첨단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다. 지난 1871년 일어난 대화재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시카고는 빼어난 건축미와 독창성을 뽐내는 마천루들의 경연장이 됐다. 이후 약 20여 년간 도시재건에 매달려온 시카고는 1893년 열린 '세계 콜럼비아 박람회(World Columbian Exposition)'를 통해 문화도시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시 당국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들을 도시 곳곳에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태동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이 시카고 인스티튜트'는 시카고를 대표하는 핵심 인프라다. 시카고의 최대변화기인 미시간 예비뉴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심과 밀레니엄 공원, 미시간 호수 등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시카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삶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1879년 시카고 교외에 미술대학과 함께 동지를 튼 시카고 인스티튜트는 1893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정식 개관했다. 이 미술관

은 그리스·로마 조각작품에서부터 미국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5천 년 인류역사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품과 문화유산 등 총 27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연평균 관람객만도 약 2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인상과 콜렉션은 프랑스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같은 독보적인 콜렉션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과 함께 미국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원

트, 엘 그레코, 드가, 로댕, 쇠라, 르누와르 등 인상과 작가들의 수작들이 포함돼 있다. 시카고 인스티튜트는 전시기획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경영 전문가와 이벤트 전문가를 고용해 미술관을 일반인이나 기업들의 회의나 파티, 모임 공간으로 빌려주는, '컨벤션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100~300명의 인원이 동시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7개의 공간

중·고등학생들과 55세 이상 노인들을 겨냥한 '미술관학(Museology)'과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다른 미술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미술관학'의 경우 매주 수요일 시카고 시내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을 초대해 미술사와 미술관 연구에 관한 권위 있는 강사진들로 구성된 이론수업을 제공한다. 이 수업은 2명의 도슨트와 큐레이터, 스태프 등이 함께 참여하며 매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 전시장뿐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아트숍, 레스토랑 등 다양한 장소에서 흥미롭게 진행된다. '엘더 호스텔'은 시카고 인스티튜트의 간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유스호스텔의 상대개념에서 착안한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5박6일 동안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비싼 참가비(1인당 100만원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이 줄을 잇는다. 시카고 인스티튜트의 관계자는 "엘더 호스텔"은 미술관 관람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문화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됐다"며 "행사기간 동안 노인들은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도 얻는다"고 말했다. /시카고=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시카고 중심가인 미시간 예비뉴에 들어서 있는 시카고 아트 오브 인스티튜트 전경. 미술관을 회의 장소로 빌려주는 마케팅으로 미술관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카고 아트 오브 인스티튜트 제공)

지역민 밀착 마케팅 15만명 회원 끌어들이 청소년·노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미국 3대 미술관...5천년 인류역사 한눈에

천이기도 하다. 시카고 인스티튜트가 19세기 인상과 작품들을 소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육류산업으로 거부가 된 팔머가(家)와 제강산업으로 부를 일군 라이어슨가(Ryerson)의 기부가 모태가 됐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유럽 회화를 사들인 후 시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평생 모은 작품들을 미술관에 쾌척했다. 이들의 콜렉션 가운데에는 렘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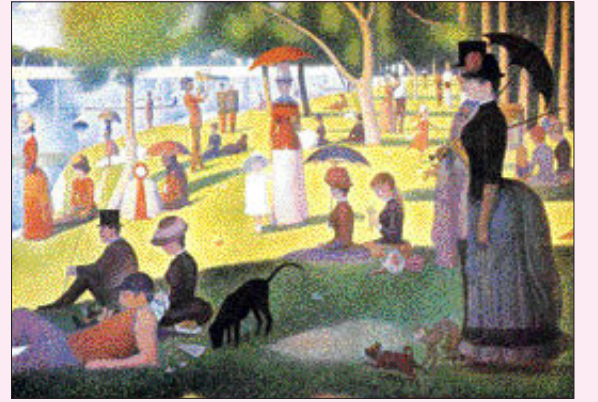
'엘더 호스텔'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이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비오는 날의 파리의 거리(Paris street, Rainy day)'를 감상하고 있다.

'그랜드 자트섬' 이것 하나만 보고와도 아깝지 않다 '밤을 새는 사람...' 美 현대미술의 진수 보여주는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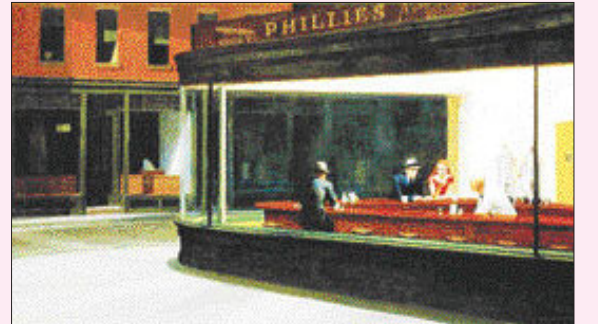
시카고 인스티튜트의 걸작들

시카고 인스티튜트에서 이것 하나만 보고 와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작품이 있다. 바로 조르주 쇠라(George Pierre Seurat·1859~1891)의 '그랜드 자트섬의 일요일(Sunday on La Grande Jatte·207x308cm)'이다. 프랑스 화가인 쇠라의 '그랜드...'는 르누와르, 세잔느, 드가 등 인상주의 회화수법과는 다른 신인상주의의 시대를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쇠라는 인상주의 회화의 수법을 바탕으로 색채가 시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이론을 연구하며 순수한 색채를 규칙적인 작은 점들로 찍는, 이른바 점묘기법으로 새로운 화면을 연출했다. 도시 사람들이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를 강변의 공원에서 보내는 장면을 그린 이 작품을 위해 쇠라는 1884~86년까지 매일 아침 강변에 나가 그림을 스케치 했다. 대상

을 단순화한 형태감과 기하학적인 구도, 점묘기법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그림은 비록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 쇠라를 인상파의 거장으로 불리게 하는 세기의 명작이 됐다.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밤을 새는 사람들(nighthawks·1942년작·84x152cm)'은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수작이다. 미국인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이른바 '미국정경회화'의 선두주자인 호퍼는 쓸쓸한 모텔방, 고립된 주요소 등 광범한 장소에 시적인 통찰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고독을 가장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가로 꼽힌다. 뉴욕 그린위치의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상념에 빠진 채 전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호퍼는 레스토랑의 세부적인 표현을 과감히 생략, 의명어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단절을 강렬하게 그려냈다.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조르주 쇠라 작 '그랜드 자트섬의 일요일'



에드워드 호퍼 작 '밤을 새는 사람들'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film strips and movie posters.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향수' and '수' with showtimes.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수' and '향수' with showtimes.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브레이크업: 이별후애' and '넘버23'.

Advertisement for Mudeung극장 listing movies like '넘버23' and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